

함평군, 지난해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보고회

금연 시도율 44.2%...고위험 음주율 늘었지만 전남 평균 비해 낮아

고혈압 · 당뇨 진단 36.3% · 17.2%...비만 역시 5.5%p 증가한 36.3%

함평군은 지난 16일 보건소에서 '2019년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류소연 조선대학교 교수가 진행한 보고회에는 보건소 보건사업 담당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보건사업을 기획·수행하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된 법정 국가승인통계조사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를 비롯 전국 17개 시·도 255개 보건

소에서 매년 동시에 진행되며, 군은 지난해 8월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만 19세 이상 성인 88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주요 지표별 조사결과를 살펴보

면 현재 함평 지역 내 금연 시도율은 44.2%로, 전남도와 비교해 4.1%p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위험 음주율은 전년 대비 4.3%p 증가했으나 월간 음주율이 2.1%p 감소해 전남 평균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반면 걷기 실천율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한 22.1%를 기록했고 고혈압 · 당뇨 진단 경험률도 각각 36.3%, 17.2%를 기록해 전남 평균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만을 역시 전년보다 5.5%p 증가한 36.3%를 기록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생산된 통계 자료는 지역 맞춤형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는 데 적극 활용할 방침"이라며, "올해 실시될 지역사회건강조사에도 지역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2020년도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오는 8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함평=김광춘 기자

신안 '상습가뭇' 팔금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에 선정

신안군은 상습가뭇으로 농업용수가 부족한 팔금면이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신규지구로 선정되어 국비 238억원도 확보했다고 전했다.

군은 이번 개발사업으로 수리시설이 부족하여 무강우 시 한해가 상습적으로 반복되는 지역에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확보하고 527ha에 달하는 농경지가 혜택을 받아 농가소득증대는 물론 배마늘, 양파 재배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한국농어촌공사는 올해부터 2025년까지 국비 238억원의 사업비로 수원공 4개소, 양수장 4곳, 송수관로 L=3.13km, 용수로 L=5.08km 등을 설치하는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을 올 하반기에 세부설계 용역을 시작으로 2021년 사업 착수하여 2025년에 공사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팔금지역이 항상 가뭇에 시달려 가슴 아팠는데, 이번 농어촌공사에서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으로 추진해 주셔서 고맙다며, 공사과정에서 주민들과 소통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농어촌공사에 전달하여 항구적인 농업용수 대책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함평군, 농지원부

내년까지 일제정비

함평군이 농지 이용 실태 파악과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차단 등을 위해 내년까지 농지원부 일제정비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농업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농지원부는 1000㎡(시설 33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재배하는 농업인(법인)이 작성대상이다.

군은 2021년까지 농지원부와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 타 정책 데이터베이스와 비교 분석해 그동안 정비수요가 높았던 농지원부를 정비한다.

특히 올해는 농지 소유·임대차 정보를 현행화 할 계획으로, 농지 소재지와 작성 대상자의 주소지가 연결되지 않거나 고령농(80세 이상) 소유 농지원부 8,165건을 우선 정비할 방침이다.

군은 정비과정에서 정보가 명확하지 않거나 경영체 등록 정보 등과 불일치하는 경우 대상자에 적극적인 소명을 요구한다.

목포시, 상하수도요금 연체료 부담 줄인다

조례 개정으로 오는 7월부터 연체일수에 따라 부과

목포시가 그동안 시행해온 상하수도요금 연체료 부과기준을 시민 부담을 줄이는 방식으로 개정하여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

지금까지 목포시는 상하수도요금 납기를 하루만 넘겨도 요금의 3%에 해당하는 연체료를 부과해 왔으나 7월부터는 연체일수가 1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밀린 날짜만 큰 계산하여 부과한다.

예를 들어 상하수도요금 10만원 을 고지 받은 사람이 납부기한을 1

일 연체했을 경우 지금까지는 연체금 고정비율 3%를 적용하여 3,000원을 더해 10만3천원을 납부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밀린 날짜인 1일 연체료 100원을 더한 10만1백원을 납부하면 된다.

이번 조례 개정은 삼향·옥암·상동 지역구 문차복 시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그동안 시 관련 부서와 수차례 협의를 거쳐 개정되었다.

김정환 기자

무안군, '명품 농수특산물 특별전' 성료

햇양파 · 고구마 등 12개 농가 · 업체 참여 30여 종 선보여



무안군은 지난 5일부터 7일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농산물 판매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광주 신세계백화점 지하1층 식품관에서 12개 농가와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던 '무안 명품 농수특산물 특별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전은 광주 신세계백화점 지하1층 식품관에서 12개 농가와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던 '무안 명품 농수특산물 특별전'을 성공적으로

특히 지역대표 농산물인 햇양파, 고구마 코너는 소비자들의 높은 인기로 북새통을 이뤘다.

또한, 무안에서 생산되는 고구마, 막걸리, 양파, 지주식 돌김 등을 시식·시음하는 행사를 진행하여 소비자들 무안 농수특산물의 우수성을 직접 체험하는 기회도 제공해 판매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켰다.

군 관계자는 "이 행사를 통해 지역농산물 소비가 촉진되어 코로나 19 피해 농가와 업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희망한다"라면서 "오는 19일부터 7일간 진행되는 대구 신세계백화점 직거래행사를 시작으로 온·오프라인 등 다각적인 홍보와 판촉 활동을 전개해 농가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무안=이기성 기자



임영주(귀얄문항아리)

서병찬(다관-백자)

목포생활도자박물관, 특별 초대전

목포생활도자박물관에서 특별 초대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코로나19로 지친 지역민들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임영주 작가와 서병찬 작가를 초청해 6월 19일부터 9월 18일까지 약 3개월간 '하려한 혹은 수수한' - 2인 기획 초대전으로 개최된다.

임영주 작가는 최근 무유변조를 통한 전통 도자의 다양한 실

험을 선보이며 창작에 매진하고 있으며, 서병찬 작가 또한 무유변조와 백자토를 이용하여 다양한 도자 조형을 추구하고 있는 수준 높은 작가들이다.

이번 전시회는 현대 도예의 트렌드인 표현의 다양성을 통해 다각적인 작가의 의도를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목포=박정수 기자

무안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1분 이상 주정차 시 과태료 부과

무안군은 오는 7월 1일부터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대상을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군은 현재 4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소화전 주변 5m이내 ▲교차로모퉁이 5m이내 ▲버스승강장 10m이내 ▲횡단보도 위 등)은 1분 간격으로 사진을 2장 이상 찍어서 신고된 건에 대해 불법주정차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를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까지 확

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관내 18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을 대상으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한달동안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하며, 8월 3일부터 위반 차량에 대해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24시간 운영되는 기존 4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과는 달리 어린이보호구역 주민신고제는 등하교시간을 고려해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만 운영된다.

무안=이기성 기자



코로나19 극복

대숲맑은 담양

공동브랜드

함께해요!

대숲맑은 생태도시 담양의 청정자연에서 따뜻하고 성실한 농부의 손길로 수확한 건강한 우리 농산물과 함께 코로나19의 빠른 극복을 기원합니다.